

주제 별로 훑어본 서울대 언어학 40년

— 통사론 · 의미론 및 음운론의 공시적 연구* —

李 廷 玟

(언어학과 교수)

1. 현대국어의 통사론 및 의미론

변형생성문법의 이론을 수용해 국어 특히 현대국어의 통사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70년대에 들어선 뒤부터이다. 그 때에 미국에서 새 이론으로 공부하여 현대국어의 통사론에 관해 학위논문을 쓴 사람들이 상당수 서울대에 자리잡거나 돌아와 학문활동을 함으로써 이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새 이론 초기에 다루어진 주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명사(절)화

나. 담화에 대한 연구(화제, 지시표현 등)

다. 재귀대명사화, 사역·피동·기동구문, 화행·양상·합축

라. 화제화·관계절화

이상은 대체로 문법記述과 관련된 학위논문급의 연구들이다. 한편 75년 이후에는 사회언어학적인 관심에서, 또는 외국어교육과의 관련하에, 또는 인류학적인 특정지역의 현지답사를 통해, 현대국어의 경어법을 다룬 연구들이 나왔다. 물론 그 전에 문법기술·화행이론과의 관련하에 경어법이 논의된 바 없지 않다(화행이론에서의 경어법, 국어경어법의 체계화 문제 등의 주제로). 또한 70년 무렵에 준자립형식에 관한 논문과 문장접속과 구절접속에 관한 논문이 국내에 머물러 계시던 분들에 의해 쓰였다. 전자(‘준자립’)와 그 전에 나온 서법체계에 대한 연구는 구조론적인 접근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또 기능적 관점에서 한국어의 보조동사에 대해 연구한 논문이 77년 78년에 걸쳐 나왔다. 프랑스 쪽의 기능주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70년대 후반에 나온 통사론의미론 논문들은 그 밖에도 특수조사, 문답의 화용상, 문체법, 否定, 否定의 영향권, 否定명령, 조건·원인·이유의 구문, 상대시제, 관형절시제, 접속, 피동(나중에 서울대에 합류한 교수에 의해), 국어의 인칭대명사 등을 다루고 있으며 학계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

* 이 글은 서울대 40년사의 언어학 분야중 표제에 주어진 일부를 살피도록 인문과학연구소를 통해 지급된 원고료 일부의 도움을 받아 87년 체미중에 작성되었다.

80년대에 들어서서는 한국어 명사화의 의미기능, 동사화의 의미기능 등 품사전성에 대한 어휘의미론적인 연구와 처소론에 입각한 상의 연구, 관형사 어미와 서술성어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가 나오고, 한국어의 반복표현, 메아리(echo)표현, 비표준적 질문과 비표준적 대답, 부가의문 등에 관한 화용론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GB이론에 입각한 영대용(zero anaphora), 선제(control) 및 묶기(binding)에 관한 연구가 나왔다. 그밖에 지시와 공손을 주제로 한 본격적인 화용론 연구가 학위논문으로 나온 것도 80년대이다. 또 시간표현에 대한 의미·화용론적인 연구가 있었고, 접속 등에서의 탈락현상에 대한 기능적 고찰도 있었다.

70년대 후반부터(주로 정책연구나 산학협동연구에 의한) 공동연구의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특기할 만하다. 어학연구소 중심으로 한·영 대조분석, 한·일 대조분석이 이루어진 이후에 언어접촉과 관련된 한국인의 언어의식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가 나와 사회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그 뒤 국문과에서 국어의 정책과 정서법 등에 관한 공동연구를 수행해 책자로 냈으며, 학문분야간의 협동으로 학술언어로서의 한국어의 발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물론 이 가운데 언어정책과 관련된 국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들이 있지만 통사·의미론과도 겹치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키로 한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협동연구로는 전산과학과의 협동으로 영한기계번역을 위한 한국어 분석기(parser) 연구가 있고, 기초과학 정책과제의 하나로 자연언어처리에 관한 연구에 역시 한국어 분석기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들 모두 이 분야의 시작이라 하겠다.

물론 변형생성문법이론이 수용되기 훨씬 이전인 50년대에도 통사·의미론의 논문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어주격접미사 ‘이’考”(57), ‘국어의미론 단상’(59) 및 어휘의미론 계통의 논문들이 나왔었다. 원로 분중에는 ‘인대명사小話’(31), “‘때’의 조동사에 대한 관견’(47), “존제사 ‘있다’에 대하여” 등 30년대 초기부터 논문을 쓰기 시작하시어 아직까지도 활동을 멈추지 않고 계신 분도 있다. 그밖에도 일찍이 ‘겸양사의 연구’(47), ‘집단곡용의 문제에 대하여’(66), ‘국어품사분류의 문제점’ 등의 논문이 나왔고, 또한 ‘格的 독립품사 시비’(53), ‘겸양법 연구’(62), ‘경어법 연구’(64), ‘주격중출의 문장구조에 대하여’(69) 등을 쓰신 원로 분도 계시다.

최근의 학위논문으로는 국어어순(반복표현 및 복합명사구의)연구, 양상(양태)연구, 몇가지 함수표현에 관한 연구 및 복합문구성에 관한 연구, 빈범주와 비대칭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또 先制(control)에 관한 연구와 관계문법기술도 나왔다.

2. 현대국어의 음운론

통사론 분야와는 달리 음운론 분야에 있어서는 변형생성문법의 음운론 이론인 생성음운

론 탄생 이전부터 유럽의 구조음운론, 미국의 기술음운론 등의 영향 아래 연구활동이 활발했었다. 물론 중세국어로부터의 음운변화에 관한 역사적 연구가 일찍부터 시작되어 역사음운론이 주류를 이루면서 발전되어 내려 왔다. 그러나 현대국어에 대한 공시적 연구가 싹트면서 ‘한글맞춤법 통일안’이 섰고(1933), 서울대에서 국어학의 원로가 되신 분이 ‘한글맞춤법 통일안강의’(1946)를 썼다. 여기에서 이미 한국어의 음운론적(형태음소론적) 현상들이 주의깊게 다루어지고 있다. 또 다른 국어학의 원로 분이 일찌기 ‘모음조화연구’(1947)를 써 한국어음운론에서 모음조화가 주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게 했다. 또 음운론연구(1955)가 책으로 나오고, 뒤이어 나온 언어학과 분의 국어음운론(1958)은 나중에 고쳐 국어음운학(1965)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분의 ‘국어의 음운’(1957), ‘치음攷’(1964), ‘국어의 상승적 이중모음체계에 있어서의 ‘빈칸’(1968)도 나왔다. 해방직후 ‘자음동화연구’(1946)라는 논문도 나왔다. 음성학을 하다가 官界로 나간 분에 의해 일찌기 ‘기준모음과 모음도표’(1938)가 나왔고 또 다른 언어학과 분에 의해 ‘중성모음 [이]에 관하여’(1968)가 나왔다.

70년대의 활동으로는 국어학 쪽에서 ‘음운규칙과 비음운론적 제약’(1975), ‘파생어 형성과 i 역행동화규칙들’(1976), ‘자음동화의 제약과 방향’(1977), ‘국어의 장모음화와 보상성’(1978), 음운현상에 있어서의 제약(1979)의 출현을 들 수 있겠고, 특히 7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생성음운론으로 학위를 해온 분들의 활동이 두드러짐을 볼 수 있다. 현대한국어의 생성음운론(1976), ‘현대한국어의 구개음화규칙’(1977), ‘이른바 거꾸로 먹이기 순서’(1979), ‘A well-formedness condition on syllable structure’(1982)가 나오고, 중세 후기 한국어의 음운론을 한 분이 ‘규칙재배열과 자유교체’(1975), ‘현대국어에 있어서의 된소리현상(1976) 및 사잇시옷 문제를 다루었다. 사잇시옷 문제는 그전에 Boundary Phenomena in Korean Revisited(1972)에서 다루어진 경우가 있으며 한국언어학회에서 한번 논의되고 나중에 80년대 초반에 국어학회에서 국어학분야 분의 주제논문발표로 토의되었다.

그밖에도 중세국어의 성조에 관해 미국에서 학위논문을 쓴 분이 국어국문학과에 합류하였다. ‘자립분절음운론과 국어’(1977), ‘Conspiracy in Korean Phonology Revisited’(1977), ‘음조배정규칙에 관한 두어문제’(1979), ‘성조와 음장’(1979)을 내고 최근에 모음조화에 관해 종합적으로 논했다. 또한 중세국어음운론으로 학위를 한 다른 분이 최근 언어학과에 합류하여 음운론분야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8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도 *SPE*이론 이후의 이론에 따른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자립분절음운론에 대하여’(1987) 등이 그러한 시도이다. 형태론의 응용으로 ‘국어사건과 파생어’(1987)가 나오는 등 이론을 실용적인 측면에 활용하는 분야들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학위논문으로도 경상방언의 성조에 관한 것과 만주어 음운론의 연구가 서울대에서 나왔다. 알타이어족내의 개별언어에 대한 이러한 깊이있는 연구는 앞으로 알타이어학의 앞날을 위해서도 의의있는 일이라 하겠다. 그밖에 최근의 음운론 이론을 한국어에 적용한 논문들

이 나오고 있다.

3. 외국어학

현대의국어에 대한 언어학적인 연구를 살피려 할 때 먼저 생각나는 것이 영어임에 틀림 없다. 그럼에도 순수하게 영어학에 종사하는 사람 수는 아직 많지 못하다. 영어의 정도어, 저주어 등에 관해 꾸준히 논문을 내시는 분, 영어의 고대, 중세 및 현대 음운론 분야에 정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영어교육 방면의 논문을 부지런히 쓰시는 분들이 있다. 영어의 readability에 관한 연구, 중간언어(interlanguage)에 대한 연구 및 영어교육 이론에 속하는 논문들이 꾸준히 나왔다.

독어학 분야에서는 의존문법에 관한 연구논문이 나오고, 현대독어의 양상 등과 관련된 조어법에 관한 좋은 연구논문이 계속해서 나와 기대를 모으는 한편, 출신중에 독일에 가서 수동태에 관해 좋은 논문을 쓴 경우도 있다. 현재 독일에 유학해 정진하고 있는 출신도 있다.

불어학 분야에서는 문체론에 관한——담화상의 시제 등——논문이 나오고 출신중에 -ment 부사에 관한 논문 등을 낸 경우가 있다. 출신들이 불란서에 유학해서 주로 언어학을 해 한국어에 적용하는 예가 많은 것은 영어의 경우와 비슷하여 언어학 자체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나, 한편 개별외국어학의 연구수준도 높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물론 언어학을 해서 주로 한국어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하되 영어 또는 불어를 자료로 해서도 좋은 논문을 낸 경우가 없지 않다.

중국어학에 있어서는 문법전공자가 뒤늦게나마 합류하여 중국어 否定語에 관한 연구를 내고, 중국어 동사 說·講·談·告訴 등에 관한 논문(1987)을 내는 등 중국어학 분야의 새로운 출발을 보였다.

서반어학도 앞으로의 발전에 기대를 걸어야 할 분야이다.

노어학은 맨나중에 생긴 분야이나 처음부터 어학전공자가 들어옴으로써 노어학 발전에 서광을 보이고 있다. 노어의 격기능, 양상 등에 관한 좋은 논문이 나오고 있다.

4. 언어이론

앞에서는 주로 개별언어와 관련된 언어학 연구의 변천과 현황을 살펴 보았으나, 언어학 연구의 중심적인 관심사는 언어이론이므로 서울대 40년사에 있어서 언어이론이 대체로 어떻게 수용, 소화, 비판 및 발전되어 왔는가를 간략히 살피기로 한다.

유럽의 구조주의와 미국의 기술언어학이 서울대 초기에 수용되어 그 바탕 위에 연구와

교육이 진행되다가, 미국에서 구조주의 일반에 대한 비판 위에 생성이론이 탄생하면서 점차 서울대에도 새 이론의 영향이 밀려들게 되었다. 그 시기가 대체로 60년대 후반이 되며 이론수용의 주요 매체가 된 것이 어학연구소이다. 또한 이 기관의 연구지인 어학연구(*Language Research*)가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 뒤 이 학술지는 차츰 질 높은 논문만을 추려 신외국학자들의 논문도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국제적인 학술지의 성격을 띄게 되었다. 형식상으로도 국제표준정기간행물번호(ISSN)를 얻게 되었다. 생성이론 안에서 일어난 해석의미론과 생성의미론의 분기와 형식의미론과 화용론의 발전 및 범주문법의 재평가, *SPE*이론, 자립음운론, 운률음운론 등 언어이론의 발전 양상이 이 학술지의 내용에 반영되었다. 이 모든 활동이 70년대 전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점차 언어현상의 연구와 관련된 인접분야와의 협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심리학, 철학, 인류학, 전산과학 등과의 협동이 그것이다. 언어학의 내실화와 더불어 그 폭을 넓혀가는 단계였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언어학의 큰 국제회의도 국내에서 열리게 되는 등 차츰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 하겠다. 이러한 연구발표 모임에서 질량에 있어 서울대가 늘 우세함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전체 언어학계에서 서울대 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단연 높은 실정이다. 출신까지를 합치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특유의 언어이론의 정립을 갈구하는 소리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서울대내의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일고 있음은 먼 장래에나마 앞으로 언어학의 중심지를 한국으로 옮겨오는 데에 원동력이 될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이익섭·임홍빈(1983). 국어문법론, 학연사.
 이기문·김진우·이상억(1984). 국어음운론, 학연사.
 이정민(1986). 언어이론과 현대과학사상, 서울대 출판부.
 김석득(1983). 우리말연구사, 정음문화사.

An Overview of the 40 Years' Linguistics at SNU**Chungmin Lee**

(Dept. of Linguistics)

This is a brief history of the syntactic, semantic and phonological studies conducte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its foundation for the past 40 years. It is based on the titles/themes of the articles and dissertations written by SNU affiliates. The most remarkable phenomenon is the accomodation of the generative grammarian approach to syntax, semantics and pragmatics since early in the 1970's, although there were some traditional grammarian or structuralist studies even far before that. In the case of phonology, the studies that started in the 40's were significant and the generative phonological framework began to give an impact on the persuit of explicitness since the latter half of the 1970's. Both theoretical and descriptive studies have been lively since the inception of generative grammar, and Korean has been the focus of investigation by SNU (generative) linguists.